

서울시·SH,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용자지원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도입 SH, 갈등중재·사업촉진 등 맡아 검증기간 1개월로 단축, 비용 면제 모아타운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아현1구역 해법, 공공모델로 확산



아현1구역 조감도.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간 갈등이 심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시 전담 정비 사업 지원 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한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시와 SH는 앞으로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 모아주택,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다.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 용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금액을 월800만원에서 월1200만원으로 늘린다. 관리 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를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2000만~6000만원인 검증 비용은 무료로 한다.

노후 주거지를 묶어서 재개발하는 모아타운의 경우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 참여형' 전환을 유도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 상품을 통해 공사비 최대 70%까지 대출한다. 임대 주택 건립 비용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도 SH가 가세한다.

SH는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주민들에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13일 직접 점검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 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

로 꼽혔다.

1980년대 아현1구역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다. 이후 정비 사업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 청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공사는 '등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 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 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전체 79%인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이들은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 모범으로 삼고 유사 사례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한강 친수공간 조류경보제 강화 운영

이달부터 10월까지 친수공간 대상 잠실대교~행주대교 매주 수질 검사 최근 3년간 남조류 세포수 증가세



한강 친수활동공간 조류경보제 채수 사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한강 녹조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10월까지 잠실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친수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강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하천이나 호소(호수나 저수지 등)에서 유해 남조류인 녹조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해 시민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조류경보 발령 이전 단계인 자체 예비단계를 운영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왔다. 친수활동공간은 수영, 수상스키, 낚시 등 친수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하

천 및 호소를 말한다.

연구원은 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등 5개 채수 지점에서 조류경보 발령 지표인 남조류 세포수를 포함해 용존산소, 수온 등 11개 수질 항목을 매주 검사하고 있다.

연구원의 최근 3년간 검사 결과를 보

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조류 세포수 평균값과 최댓값이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조류경보 관심단계 기준인 2만 세포/ml에 근접했다.

올해부터는 조류경보 발령 기준이 기존 남조류 세포수 단일 항목에서 조류독소 항목까지 확대되면서 수상 활동이 집중되는 기간 조류독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조류독소는 유해 남조류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원은 정밀분석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법(LC-MS/MS)으로 마이크로시스틴-LR, YR, R, LA, LY, LF 등 6종의 조류독소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강화는 2025년 12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27일부터 취약계층 우선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신속한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급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 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총 3개 반,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사업 총괄을 비롯해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대상 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

이다.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의 소득 기준 확정 이후 최종 결정되지만, 현재 계획에 따르면 1차로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 55만 원,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 45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이어 2차로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경우 지원 금액이 상향돼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원금은 도민 편의를 고려해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교육청, 올해 IB 관심학교 91곳 선정

올해 관심·후보·인증학교 106교 운영 미래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 박차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로 91교를 선정, 총 106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실시한 '2026 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 바칼로레아(IB)'는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인 IB에서 1968년부터 운영해 발전시켜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 및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 약 160개국 5900개 이상 학교에서 약 200만명의 학생이 참

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교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14일 (화)

음력 : 2월 27일

수도권 날씨

12 ~ 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9 | 해질 / 19:06

연천 9/26, 동두천 11/26, 가평 9/25, 양평 9/25, 용인 11/24, 평택 9/24, 안성 11/24, 수원 11/24, 인천 12/24, 파주 10/25, 서울 12/25, 백령도 9/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트럼프, 대이란 해상교통 봉쇄 발표에도 "휴전 잘 유지 중"

▲日,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에 "자위대 파견 정해진 것 없어"

/사진 뉴시스

▲中, 항산 수출 5월부터 중단... 원자재 시장 압박 전망

▲이스라엘, "레바논내 완충지대 위해 주택과 마을 철거 시작"

▲홍콩 증시, 중동 평화협상 불발에 반락 개장... H주 0.81% ↓

▲교황 "전쟁 광기 함께 맞서야... 종교로 학살 정당화 말라"